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5. 12. 7.(일) 11:00 / 12. 8.(월) 조간 배포 2025. 12. 5.(금) 16:00

농촌진흥청, '소통 소중한 동행, 미래로 가는 길' 기획전 개최

- 소와 인간과의 관계 재조명,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담은 특별전
- 전통·예술·과학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 구성
- 내년 10월까지 농업과학관 특별전시관 상시 전시

우리 민족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소'의 여정과 미래 축산업의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12월 8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소통(牛通) 소중한 동행, 미래로 가는 길'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소'를 통해 한국 축산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 과학 기술 기반 미래 축산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현재-미래'로 전시 공간을 나눠 소와 함께한 우리 민족의 역사, 축산 분야 연구 성과, 미래 축산 청사진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게 꾸몄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 숨결, 소의 시작' 전시에서는 농경사회에서 노동의 동반자이자 제물,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의 모습을 소개한다. 고구려 벽화 속 수레를 끄는 소, 신라시대 제천 기록, 견우·직녀 설화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가까이 존재했던 소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시화 속의 소' 전시에서는 김홍도·김식·이중섭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소를 순박함, 인내, 슬픔, 풍요로움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우 수탈과 품종 단일화 정책 등 뼈아픈 역사를 기록한 '빼앗긴 워낭소리' 전시도 의미 있다.

한우 산업이 식문화 중심 품종에서 고급육 산업으로 발전한 과정을 다룬 '케이(K)-브랜드의 대표주자, 명품 한우'와 우리나라 낙농 산업의 발전사를 소개하고 젖소 연구 성과를 담은 '소 맞습니다. 나는 젖소'도 관심을 끈다.

한우 품질 경쟁력을 높인 연구 성과 소개('한우, 과학으로 진화하다'),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형 축산 연구 전시('지속 가능한 축산업 위한 천천히, 그러나 멀리…')도 꼭 둘러볼 만하다.

관람객 체험형 콘텐츠도 다양하다. '소 부위별 모형 맞추기' 체험을 비롯해 기능성 유산균 제품과 반려동물 영양기준에 맞게 제조한 사료를 전시해 볼거리를 선사한다. 치즈 제조 과정을 시연하고 치즈별 특징을 소개하는 체험 행사도 흥미롭다.

관람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전시 문의는 농업과학관(063-238-1300)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특별전은 '소'라는 동물이 우리 역사, 문화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아가 한우 산업에 과학 기술이 접목해 어떤 발전을 거듭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이다."라며, "축산의 가치와 연구의 의미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시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책임자	과 장	유동조 (063-238-7120)
		담당자	주무관	송명섭 (063-238-7146)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성휴 (063-238-0790)
		담당자	연구사	한종원 (063-238-0806)

붙임 **전시 개요**

□ 전시 개요

○ 목적 : 농업과학관 특별전시를 통한 축산업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공유

○ 기간 : ’25. 12. ~ ’26. 1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특별전시관

□ 주요 내용

○ (전시) 소와 함께한 역사와 축산 연구 성과, 미래 축산 비전을 단계별로 소개

- (과거)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한 소의 역사적 가치 조명
  * 「우리민족과 함께한 숨결 ‘소’」: 제례, 농경, 설화 등 소와의 공존 문화 소개
  * 「시화에서 표현되는 ‘소’」: 김홍도·김식·이중섭 등 작품을 통해 표현된 소의 상징성 전시
  * 「빼앗긴 워낭 ‘소’리」: 일제 수탈, 품종 단일화 정책, 전통한우 복원 연구 소개
- (현재) 한우의 고급화 및 낙농업 기반 조성 등 축산 R&D 소개
  * 「한우는 이렇게 K브랜드가 되었‘소’」: 사양관리, 유전개량, 씨수소 선발, 수출 규격 설정 등
  * 「‘소’맞습니다 나는 젖소」: 젖소 개량, 로봇착유기 개발, 유제품 연구 및 산업 확산 과정
  * K브랜드의 대표 주자 한우 드‘소’: 등급 기준, 건식 숙성 연구, 소비·수출 확산 기술 등
- (미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미래 축산 비전 제시
  *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해 뛰겠‘소’」: 축산냄새 저감과 분뇨 자원화 개술 개발

○ (참여) 관람객 체험 콘텐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 기능성 유산균 활용 제품(일반, 분유 등) 실물 전시/ 한우고기 부위별 수출 안내서 실물 전시/ 저등급 소고기 숙성기술 개발 모형 전시/ 반려동물 영양표준 사료 실물 전시/ 소 부위별 모형 맞추기 체험

□ 전시

김홍도 화가의 ‘논갈이’

이중섭 화가의 ‘흰 소’

저메탄 사료 첨가제 ‘티아민 이인산’